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마음가짐



김 유 용

서울대학교 교수, 본회 R&D위원

2006년부터 시작된 국제 곡물시세의 급격한 상승은 우리나라 양축가들은 물론 모든 사료회사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사료회사들이나 양축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생산비 중에서 사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50~60%나 되기에 사료비 절감은 생산비의 절감에 직결되므로 최근의 상황에서 양축가들이 생존하기 위한 절대절명의 과제라고들 말하고는 있다.

필자는 실험농장의 형태지만 모든 180두 규모의 양돈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기에 일반 양축가들처럼 생산비의 절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매일 현실적으로 체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사태에서도 과연 우리나라 축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양축가, 사료회사들이 사료비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진정으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이에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우선 양축가들이 현장에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이 있음에도 간과하며 지나치는 점들을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언제부턴가 놀랍게도 대부분의 양축가들이 포유자돈에게 입불이사료를 분만 후 1주일 이내에 급여하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

해가 가지 않는, 이상한 사양방법을 당연하듯 사용하고 있다. 원래 입불이사료의 급여 취지는 포유자돈들이 이유(weaning) 후 모유 대신 거친 사료를 먹어야 하므로 이유직후 거친 사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따라서 이유 직전 맛보기로 급여하면 되는 입불이 사료를 생후 3~4일부터 급여하는 양축가들은 과연 생산비의 개념을 알고나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입불이사료는 그 가격이 1,000~3,000원/kg이나 하는 매우 비싼 사료에 해당하는데, 양축농가들이 포유자돈에 입불이사료를 급여할 때 두당 상승되는 사료비용을 계산해 본다면 포유자돈들의 분노에 의한 오염, 자돈의 발에 넘어져 쏟아지는 경우 등으로 비싼 입불이사료를 버리거나 손실되는 것을 절대로 방관하지 못할 것이다. 필자는 포유자돈에 입불이사료의 급여가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입불이사료가 각 양돈장에서 정말 경

제적,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양축가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다.

우리나라 양돈장 분만사의 사료급이기를 살펴보면 물과 사료가 혼합된 형태로 급여되는 습식사료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모돈의 생리를 이해한다면 이 같은 형태의 사료통이 과연 우리나라 상황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우선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겨울에 차가운 물과 사료가 섞여 있으면, 모돈들은 차가운 물을 억지로 먹어야 하기에 사료섭취량도 떨어지고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사료의 양이 제한되어 많은 사료가 남게 된다.

또한 물과 섞여서 모돈이 먹다 남은 사료들은 신선도가 떨어지고 모돈들의 기호성은 더욱 떨어지게 되어 다음 번에 관리자가 사료를 줄 때에 사료통에 남아있는 사료를 모두 제거한 후 다시 사료를 주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관리자들은 요령이 생겨서 사료가 남아서 폐내는데 힘들 것을 미리 예상하고 포유돈의 사료 급여량을 줄이게 되므로 포유돈들이 포유기간중에 충분한 사료를 섭취할 수 없어 젖분비도 저하되고 포유자돈들의 성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모돈의 분만후 체형회복이 더 늦어져 궁극적으로는 모돈들의 도태율이 당연히 높아질 것이다.

포유돈 사료통에서 허실되는 사료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닐진데 포유돈사료의 허실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 사료회사들이 과연 있었는가? 허실되는 사료에 대해서 양축가들에게 낭비되는 비용을 계산하여

자세히 설명해주는 성실함을 보인다면 대부분의 양축가들은 그 회사의사료를 더욱 신뢰하고 구입할 것이 자명할 것이다. 국내에서 거의 생산하지 못하는 원료사료들을 값비싼 외화를 주고 수입한 사료들을 그냥 버리는 것은 축산업의 관점을 넘어서 국가적으로는 자원낭비의 전형이 될 것이다.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초산돈부터 임신기간중에 사료를 너무 많이 급여하는 잘못된 사양관리방법이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많은 농장에서 전혀 의심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신모돈은 제한급이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수많은 연구논문에서 언급한 지극히 당연한 사항인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료회사들은 임신말기에 사료급여량을 늘릴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자가 묻고 싶은 말이 있는데 "부인이 임신을 하였을 때 임신초기에는 한끼에 한 그릇, 임신말기에는 한끼에 밥을 두 세 그릇을 먹었는가?" 라는 의문이다.

돼지의 생리도 사람의 생리와 유사하여 임신초기에 섭취하는 사료영양소들은 가능한 체내에 축적을 하고 임신중기부터 점차 체내의 태아들이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다 (임신35일까지 태아 한 마리의 무게는 불과 1g에 지나지 않음). 따라서 임신후기에 태아가 급격히 성장할 때는 이미 모돈의 체내에 축적된 영양소들이 동원되어 태아의 성장에는 전혀 문제가없는것이자연의 이치요, 모돈의 기초적인 생리이다. 그런데 임신후기에 언제부터가 사용되고 있는 "사료증량"이라는 그릇된

사양방법은 모돈들이 과체중이 되고 과비가 되어 난산은 물론 많은 문제점을 일으켜 우리나라 양돈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첨병역할을 하고 있다.

임신돈들이 임신기간중 사료를 더 많이 섭취하면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필자의 경험으로 보면 정말 착각이요 어리석은 관리방법이라고 말하고 싶다. 임신기간중에 사료를 많이 섭취한 모돈들의 경우 분만후 포유기간중에 사료 섭취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필자의 실험에서도 입증되었고, 많은 연구논문에서도 보고하고 있는 바이다. 필자의 양돈장에서 초산돈의 경우 임신돈사료를 임신초기부터 분만직전까지 하루에 2kg만 급여하여도 임신돈과 태아들이 잘 성장할 뿐만 아니라 산차 역시 6산차 이상이 50%를 넘고 있다. 그렇다면 경산돈들의 임신기간중 사료급여프로그램은 어떠한가?

이 문제는 연구비를 지원하며 산업체와 학계와 함께 연구해야 하는 문제로, 지원 없이 결과만 내놓으라는 것은 너무 과한 요구라고 생각한다. 최근의 상황에서는 사료회사들은 임신돈사료를 판매하는 것과 포유돈사료를 판매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이로운지를 계산하기에 앞서 양축가들이 폐업을 하거나 도산을 했을 때 자신들의 고객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것을 명심하고 양축가들에게 올바른 사양관리방법을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토록 많고 다양한 모돈의 사료급여 프로그램 중에서 과연 우리나라에서 검증하여서 객관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프로그

램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사료회사들은 각각 다르고 복잡한 사료급여프로그램들을 객관적인 실험과 검증을 통해 현재 각 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임신돈의 사료급여프로그램이 타당한지를 점검한후 양축가들에게 제시하였으면 한다.

미국에서는 비육돈 한 마리를 생산할 때 비용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cent단위로 따지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1원 단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는 돈육가격이 낮을 때에는 생산비절감에 조금 관심을 보이다가도 가격이 오르면 이내 생산비 절감이란 용어에 무감각하거나 간혹 거부감을 갖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마음가짐으로는 우리나라 양돈산업이 유럽의 양돈선진국들과의 경쟁에서 뒤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 양돈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시간은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노력한다면 조만간 양돈경기가 호황으로 접어들면 정말 크고 놀라운 결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